『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1
pp.001-025 ISSN : 1229-9618

20세기 초 중국유학생 잡지를 통한 ‘문사(文士)’ 의식의 변화 고찰*

— 루쉰(魯迅)의 일본 유학시기를 중심으로

박노종**

【목 차】

1. 들어서며
2. 루쉰과 유학생 잡지
   1)『절강조(浙江潮)』시기
   2)『하남(河南)』시기
3. 일본 유학시기 서구사상의 수용과 자기 변용
   1) 슈티르너의 ‘유일자(唯一者)’와 루쉰의 ‘이 자아(此我)’
   2) 니체의 ‘초인(超人)’과 루신의 ‘일이사(一二士)’
   3) 바이런의 ‘영웅(英雄)’과 ‘마라(摩羅)’
4. 나오며

【초록】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의한 강제적인 문호 개방에 시달리며 문명의 큰 충격을 경험한 중국의 전통적인 문사들은 새로운 지적 생성을 도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엘리트집단은 자국을 무력화시킨 서구 문명국의 유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초기 유학생 대부분은 전통학문을 훈습하였고 전통적인 ‘문사(文士)’들의 전철을 밟은 인물들로 전통 문인의 기질과 품격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자국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자존감은 여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전통 학문과 서구 학문을 모두 총섭하고 유학까지 경험한 루쉰(魯迅)의 일본 유학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유학생 잡지『절강조(浙江潮)』와『하남(河南)』에 발표한 글을 통해 루쉰의 전통적 사유와 서구의 사상관념이 어떻게 교응(交應)하는지를 살피는데 주목하였다.

【키워드】 유학생 잡지,『절강조(浙江潮)』,『하남(河南)』, 문사의식, 근대성, 전통학문, 루쉰, 장타이옌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007)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시간강사 (lujongp@hanmail.net)

1. 들어서며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의한 강제적인 문호 개방에 시달리며 문명의 큰 충격을 경험 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근대 초기 동아시아 지식 담론의 생성과 전달 과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엘리트집단은 대개 유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전개되면서 외국문물을 배우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미유학이 추진되었고,[1] 점차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비 유학을 떠나는 인원이 늘어났다. 게다가 청 정부에 의해 1905년 과거시험이 폐지된 시기를 즈음하여서는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근대시기 유학생들은 대부분 전통적 학문을 훈습한 '문사文士'로서의 전통 문인의 기질과 품격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여전히 자국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학이라는 직접적인 수용 과정은 충격의 파급과 정도에서 울림이 클 것이며 유학생들의 '생각의 좌표'가 여과 없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유학생 잡지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루쉰(魯迅)의 일본 유학시기 그가 유학생 잡지에 발표한 글을 통해 루쉰의 전통적 인식과 서구의 사상관념이 어떻게 교응(交應)하는 지를 살피는데 주목하였다.

루쉰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중시하는 문사 집안에서 서당을 다니며 전통 학문을 착실히 익혔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고 전통학당도 설 자리를 잃어 감에 따라 처음으로 샤오싱(紹興) 고향집을 떠난 난징(南京)으로 가 양무학교에 입학한다. 이때가 그의 나이 17살로 이미 청소년기는 지난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때를 즈음하여 서양의 학문을 본격적으로 익히게 되었고, 관비로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어 서양 의학을 배울 계획이었다. 이미 20세의 성숙한 청년기에 접어든 루쉰의 일본 유학 생활에서 많은 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의 고민과 흔적이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유학생 잡지 『절강조(浙江潮)』와 『하남(河南)』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루쉰이 근대를 지점으로 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방으로부터 밀려오는 '근대'와 어떻게 고투를 벌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료인 셈이다.

루쉰의 일본 유학과정은 크게 『절강조』와 『하남』에 기고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잡지 사이의 대척점은 이른바 '환등기 사건'의 전후로 구분된다.

『절강조』에 기고한 글은 대부분 자연과학과 역사 등 서구의 과학 지식을 소개하고 번역한 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구의 선진문물을 대변하는 과학적 업적에 대한 천착과 찬양이자 과학을 신앙으로 여겨 계몽의식을 발양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계몽주의적 태도는 이미 중국의 양무학교 시절 서구 사상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준 옌푸(嚴復)의 번역을 통한 진화론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으로 전향을 결심 뒤 유학생 잡지 『하남』에 발표한

---

1) 1872년에서 1875년까지 소년들로 구성된 유학생 120명이 4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미국에 유학하였다. 李喜所,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 天津教育出版社, p.25.

글은 초기 루쉰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전과 확연히 다른 인문학적 주제의 글이 주종을 이루며 광범하고 충만한 지적 세계와 서사의 비평적 관점은 이후 루쉰의 인식과 실천적 맥락을 읽어 내기에 충분하다. 이 시기에 그는 도쿄에서 부지런히 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접하며 미래적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장타이옌(章太炎)을 만나게 된다.[2] 특히 장타이옌과의 교류와 영향은 루쉰 초기 연구의 주요한 관건이 된다. 그것은 장타이옌이 전통사상과 서구사상을 총섭한 상징적 인물이란 점과 전통적 문사의 유습이 역력한 점에서 루쉰과의 연관성을 대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루쉰의 일본 유학시기 『절강조』와 『하남』에 실린 글에는 청년기에 나타날 법한 논리적으로 모순과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그의 글 제목처럼 '편향(偏至)'적인 서술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청년 루쉰'**이란 관점에 방점을 찍는다면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특히 유학시기 잡지에 발표한 글을 놓고 보면 청년 루쉰에게 영향을 끼친 대표적 서구의 사상가는 슈티르너, 니체, 바이런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뚜렷한 주장과 사유의 이채로움에서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고 새로움이란 설득에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청년 루쉰은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쳤을까? 우리는 이 시험적인 탐구를 통해 루쉰이 전통의 연속성이란 문제와 함께 이를 포섭하는 중국의 근대성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루쉰은 슈티르너의 '개인주의적 무치주의(個人的無治主義)'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고 루쉰이 아나키즘을 사회운동사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주체의 문제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슈티르너에 깊이 심취한 까닭은 더욱 명료하다. 예를 들어 '인국人國' 즉 '사람의 나라'는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구호가 아니라 나를 객관화 하는 힘을 가진 '이 자아(此我)'를 통해 나와 세계가 상호적인 독자성을 갖고 서로를 침탈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관념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중국 철학에서 표출되는 '무치지치(無治之治)'의 이상적 통치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

다음으로, 그는 니체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루쉰의 유학 무렵 일본에 니체의 열풍이 불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가 니체 일인에 국한해 철학적 개념을 생성한 것은 아니다. 그가 자주 언급한 '초인(超人)'은 쇼펜하워의 '천재(天才)', 키에르케고르 '단독자(單獨者)' 등과 큰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체의 힘으로 시대를 헤쳐 가는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루쉰에게는 실제로 가혹한 현실을 구제할 구원의 철학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의 '초인'은 한편으로 중국의 '성인(聖人)'의 출현을 기다리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그가 니체의 허무주의적 관념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 그는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2) 1903년의 「斯巴達之魂」, 「說鈤」, 「中國地質略論」과 1907년 이후 「文化偏至論」, 「摩羅詩力說」, 「破惡聲論」 발표된 글은 뚜렷한 내용의 차이와 사상 변화의 흔적이 있으며 뒤의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주로 옌푸의 영향을 받았다면 후자는 장타이옌의 영향을 받았다. 옌푸와 장타이옌은 루쉰 초기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다. 그 가운데서도 장타이옌의 영향은 더욱 중요하다.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 p.452.

철학을 계층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다. 강자의 철학이 아니라 중화(中和)적 관념의 세계로 시선을 돌린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선지자인 '일이사(一二士)'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內曜)'이 잘 발양된 인격자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한명의 인물은 바이런이다. 그는 바이런 외에도 많은 문학가들을 악마파 시인 묶어 그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바이런에 대한 중국에서의 열풍은 대단하였다. 량치차오(梁啓超), 쑤만수(蘇曼殊), 왕궈웨이(王國維) 등 모두 바이런 소개에 앞장섰다. 그러나 루쉰은 「마라시력설(摩羅詩力說)」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논점을 부각시키며 바이런의 시를 설명한다. 루쉰은 악마란 단어를 '마라(摩羅)'라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학의 원천적 요소로 보고 격정은 생명이자, 비유와 풍자가 샘솟는 민족지이란 그의 문학적 일념을 설파한다. 루쉰은 일찍부터 신화와 민간전설, 연극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연구하고 편집하는 재능까지 지니고 있었다. 이런 문학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곧 사람중심의 그의 문학관과 연결되는 동시에 초기 루쉰 사상을 규정하는 '사람 세우기(立人)' 즉 인간 주체의 근본적 변화와 정립 또한 사람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루쉰과 유학생 잡지

1) 『절강조(浙江潮)』 시기

(1) 옌푸(嚴復)의 영향과 일본 유학

일본 유학이 선풍을 이루던 시기[3]에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일본 유학생들은 대개 지역의 연고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였다. 동향의 이름을 내건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벌이면 타국에서 중국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앞서 서양 문물을 수입하고 개방한 일본에는 관비 혹은 자비 유학생과 정치적 망명자들까지 더하여 이미 성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이나 명사들이 많았다. 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전통과 서구 학문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유학의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능력과 지역의 명문가 출신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든 이들은 변화하는 중국 내정과 세계정세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쉰이 유학을 할 당시에 지역 이름을 내건 잡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다.[4] 『절강조』 또한

3) 일본 유학생들은 20세를 전후한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명망가, 거인, 수재, 진사에 오른 인물, 전족한 여성 등 다양하였다. 1905년 청정부가 과거제를 완전히 폐지한 이후로 급증하여 기록에 따르면 1905년 8,000명, 1906년 12,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李喜所,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 天津教育出版社, pp.142-143.

4) 『湖北學生界』(1902), 『浙江潮』(1903), 『江蘇』(1903), 『直說』(1903), 『雲南』(1906), 『洞庭波』(1906), 『四川』(1907), 『河南』(1907), 『晉乘』(1907), 『夏聲』(1908), 『江西』(1908) 지역성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대개 애국심과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취지로 발간되었다. 李喜所,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 天津教育出版社, p.181.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잡지이다.[5] 샤오싱에서 성장한 루쉰은 동향의 친구 쉬서우창(許壽裳)의 권유로 이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문필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이때 나는 벌써 루쉰과 상당히 친해져 있어서, 그가 당시에 적막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막 『절강조』의 편집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나는 곧 바로 그에게 원고를 청탁하였다. 그는 단숨에 응답을 하고는 하루만에 「스파르타의 혼」이란 글 한 편을 가지고 왔다. 이처럼 체면을 차리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아주 다른 점이다. 신속한 응답과 신속한 글쓰기는 정말 나를 감탄하게 하였다. 이 글은 젊은 시절의 작품인데,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빌어 우리 민족의 상무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뒷날 그는 이 글의 유치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기실 그 어떤 천재도 유치함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 루쉰은 또 「라듐에 관하여」란 글 한 편을 지었다. 이것은 새로운 원소 라듐을 최초로 소개한 글이다. 그 당시 라듐이 퀴리 부인에 의해서 막 발견되자, 루쉰은 이를 소재로 글을 지어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아울러 순수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였다.[6]

당시 루쉰이 『절강조』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눈에 띄게 자연과학과 역사와 관련된 글이 많다는 사실이다.[7] 「라듐에 대하여(說鈤)」, 「중국지질약론(中國地質略論)」처럼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과 번역 「지구 속 여행(地底旅行)」역시 자연과학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과학 방면에 자못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일본 유학을 와서 처음 의학으로 진로를 선택한 까닭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럼 루쉰이 이렇게 과학 연구를 중요한 여긴 계기는 무엇이며 이것이 향후 그의 학문과 사상에도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루쉰이 이처럼 과학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사회적 의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문사 가풍의 엄격한 훈도 속에 전통학문을 익히고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낸 루쉰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양무운동 이후 중국에는 서양식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전통학문을 통한 출세의 출로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젊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무학교에 가는 것을 '양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란 통념[8]이 지배하던 탓에 학문의 전향은 용기가 필요

---

5) 1903년2월17일 도쿄에서 창간된 문명수입과 반청혁명을 취지로 하는 종합적 성격의 구독물이다. 월간으로 모두 10기까지 나왔으며 매기별 약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보를 포함한 대형 잡지라 할 수 있다. 蔣方震(百里)、蔣智由, 王嘉榘, 孫翼中、馬君武, 許壽裳 등이 발기하고 창간하였으며, 절강출신의 유학생이 주로 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章太炎, 魯迅, 王國維 등이 여기에 글을 기고하였다. 郭晶, 「魯迅與『浙江潮』」, 遼甯師範大學, 2010.5.

6) 許壽裳 「亡友—『浙江潮』撰文」, 人民文學出版社, 1977, p.14. (쑨위 지음, 김영문·이시활 옮김, 『루쉰과 저우쭈어런』, 소명출판, 2005. 재인용)

7) 「哀塵」(第1期), 「斯巴達之魂」(第5期), 「說鈤」 (第8期), 「中國地質略論」(第8期), 「地底旅行」(第10期) ,부록 참조.

8) 『魯迅全集』 第一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415 『吶喊』 自序.

했다.

마침내 1898년 17살의 나이에 어렵게 마련한 8元의 여비를 챙겨 루쉰은 고향을 떠나 난징의 양무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서구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서구의 학문에 매료되어 많은 번역서를 접하고 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구 문명과 무력의 막강한 위력은 결국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양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쌓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학문적 풍토에 영향을 받은 루쉰도 자연스럽게 서구의 자연과학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함양하였다. 그는 처음 강남수사학당(江南水師學堂)을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육사학당에서 운영하는 광무철로학당(鑛務鐵路學堂)으로 옮겼다. 학교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이곳에서 지질과 광산학을 배우는데, 후에 그가 『중국지질약론』 과 『중국광산지(中國鑛産志)』를 쓴 것도 이런 학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루쉰은 군대를 키우고 경제를 향상시키는 일은 중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에 비하면 '지엽적인 추구'[9]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했다.

그러던 이 시기에 루쉰을 더욱 심취하게 만든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론(天演論)』이다. 옌푸가 헉슬리의 책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진화론과 윤리학』을 번역한 『천연론』은 출판되자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다. 변법자강 운동이 본격화 되던 1896년 번역되어 1898년 출간된 이 책이 당시 지식계에 미친 충격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용어는 당시 외세에 침입에 속수무책이던 무력한 봉건체제 상태에 처한 현실에서 구원의 빛과 같았다. 이 책은 우울한 패배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있던 루쉰에게 진화론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던졌으며, 이 책을 음미하며 루쉰은 인류 역사의 진행과 세계에 대한 이념 체계를 낙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재를 발견한 것이다. 그만큼 『천연론』은 루쉰의 초기 사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 당시의 그의 진화이론이 깊이 구현되고 체득된 상황이라 할 수는 없지만[10] 『천연론』에 힘입은 그의 낙관적 태도는 아마도 일본 유학으로의 결행을 실천하는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루쉰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옌푸가 누구인가? 그는 복건선정학당(福建船政學堂)을 졸업하고 1877년 청정부가 유럽에 파견하는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떠난 중국 근대 1세대의 유학생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영국에서 런던의 황실해군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등을 거쳐 돌아와 유럽의 선진사상을 소개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는 당시 동료 유학생들처럼 대개 함포, 조선, 기계 등 전문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서구의 사상과 철학 등에 이르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헉슬리의 시작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原富)』(1901), 스펜스의 『사회학개론(群學肄言)』(1903),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法意)』(1904) 주요한 서구의 사상서를 중국에 번역하여 소개했다. 그는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신달아(信·達·雅)'라는 번역이론을 적용하여 현대 번역의 모범을 선 보였다.

그리고 옌푸의 유학과정과 번역에 이르기까지의 탐구열과 실천적 학자로서의 풍모는 사상

---

9) 왕후이(汪暉) 지음, 송인재 옮김, 『절망에 반항하라』, 2014, p.69.

10) 루쉰이 진화론에 대한 철학적 요지는 옌푸를 통해 이해했지만 과학적인 내적 체계를 이해한 것은 일본 유학 후 오카아사찌로우(丘淺次郎) 『進化論講話』(1904)를 읽고 난 뒤의 일이다.

적 관점을 달리하여도 후일 루쉰에게서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두 전통적 문사의 학문적 전향과 근대를 위한 모색의 과정은 근대 지식인 또 다른 '고민의 상징'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科學)과 계몽의식

1902년 관비로 일본 도쿄로 온 루쉰은 도쿄의 고분학원(弘文學院)을 다니며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준비한다. 이 시기 그는『절강조』잡지에 글을 게재하는데, 루쉰에 대한 평가 또한 이 자료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이때 실은 글을 유치하다[11]고 평한 것처럼 아직 논리적으로 덜 성숙한 문장만 그의 사상의 예단이 드러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때의 글은 그의 과학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듯이 과학과 관련된 문장이 눈에 띈다.

그가『절강조』에 실은 글의 면면을 보면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퀴리 부인의 과학적 업적을 소개한「라듐에 대하여」,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하는 번역 쥘 베른의「지구의 여행」번역과「중국지질약론」등이다. 이때의 글의 제목만 보아도 그의 자연과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과학과 관련된 글을『절강조』에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로도 이후『예보(豫報)』에 발표된「중국광산지」의 출판을 예고한 광고나『하남』잡지에 발표된 글에서 더욱 논리적 체계와 사상적 기틀을 겸비한 글이 이어진다.

이처럼 그는 과학 지식을 섭력해 글로 정리할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과학적 원리는 아마 인문학적 사유체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잡문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글의 스타일이 지닌 장기는 모르긴 해도 이런 과학과 인문 지식의 균형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절강조』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글 외에 서구의 문학과 역사와 관련된 글도 실려 있어 그의 인문학적 관심이 여전함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스파르타의 혼(斯巴達之魂)」,「애진(哀塵)」[12]을 통해 그의 상무적 정신과 피지배 계층에 아픔을 거침없이 설파하고 있다.

힘없는 민족과 나약한 국민성은 그에게는 원죄의식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중국 민족과 국민성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과학의 신앙과 함께 이 시기 그의 계몽의식 소산이 되었다. 유학생활의 시작과 함께 이 시기 루쉰의 패기와 기상을 잘 보여주는 이들 작품은 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가 '상무적 문예를 좋아하였다' [13]는 평가 또한 크게 벗어나 지 않

---

11) 나는 그때 처음 일본어를 배워서 문법을 그다지 명료하게 알지 못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책을 보는데 급급했으니 책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번역 문장도 얼마나 이상한 고문투로 썼던가? 특히「스파르타의 혼」은 지금 읽어보면 내 스스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이다.『魯迅全集』第7卷, 人民文學出版社. 1981. p.4.

12) 빅토르 위고의『목격담(Choses vues)』을 日本의 모리타시켄(森田思轩)이 번역한『随見錄一芳梯的來歷』(1898)에서 중역한 것이다.『浙江潮』 제5기. 필명은 庚辰., 위고는 이 이야기를『레미제라블』제5권 12장과 13장에 삽입하였다.

13)『루쉰과 저우쭈어런』, 앞의 책, p.77.

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잡지를 통한 활동 또한 계몽의지를 펼치는 실천의 도구였다.

사실 루쉰의 고향 지역인 저장 지역은 반청 혁명 활동의 과정에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고 중요한 혁명인 인물이 희생되어 혁명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다. 루쉰의 일본 유학시기와 비슷한 때 일본으로 건너와 혁명 활동을 한 쉬시린(徐錫麟)과 여협 츄진(秋瑾) 등이 그와 동향이었다. 루쉰은 또한 그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고 타국에서도 조국의 장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식자로서의 임무이기도 하였다.14)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절친한 동향 친구인 쉬서우창에게 보낸 구체시 「자제소상(自題小像)」에 잘 드러나고 있다.

> 내 마음 사랑의 화살을 피할 길 없는데,
> 비바람이 검게 온통 나라를 뒤덮고 있구나.
> 차가운 별에 부치는 뜻을, 님이야 알겠냐마는
> 난 나의 피를 기꺼이 헌원(軒轅)에게 바치리라.15)

이국땅에서 뜨거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루쉰의 열정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구체시의 작법 속에서도 그의 혈기충만한 청년으로서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그가 문어체로 번역한 「스타르타의 혼」은 당시 러시아아가 동북지역을 집어 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 긴박한 정세에 부응하여 지은 것이다. 그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중국에 소개하려 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작은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가 강력한 주변 국가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함양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쇠락한 국력으로 외세에 무참하게 굴복당하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격문이라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러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계몽 의식은 과학과 관련된 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지질약론」에서 그는 자국의 자원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괴심과 아울러 자원의 중요성과 자국의 자원을 지켜 내야 하는 이유를 절절한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 "중국은 중국인의 중국이다. 외국의 연구는 허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탐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의 찬사는 허락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훔쳐가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16)

무엇보다 이러한 그의 계몽의식의 근원에는 인간해방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의식은 아직 정치하지는 않지만 늘 그의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것은 전통 학문을 배우고 서구의 학문을 접촉하면서도 한결같은 주제의 중심이었다. 그의 이런 경향은 「애진」의 번역해 『절강조』에 실은 이유이기도 하였다. 작품 속의 주인공 비천한 여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

14) 『朝花夕拾』 「範愛農」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동향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잘 엿볼 수 있다.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3권, 그린비출판사, 2011, pp.216-218.
15) 「自題小像」 『集外集拾遺』, 『魯迅全集』 第七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423.
16) 「魯迅全集』 第八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4.

직면하여 항거해 보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서글픔이다. 성인이 죽지 않으면, 도적이 사라지지 않는다.[17]는 전통의 명제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쉬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문제에 대한 근원적 고민도 심화되어 간다. 이는 이후 유명한 센다이에서의 환등기 사건을 통해 루쉰의 새로운 고민과 변화의 층위를 생성하고 있다.

2) 『하남(河南)』 시기

(1) 루쉰과 장타이옌(章太炎)

이른바 센다이의대에서 겪은 환등기 사건이 루쉰의 관념을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1906년 과감하게 의대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성화로 잠시 귀국해 주안(朱安)과 결혼을 한 루쉰은 홀로 도쿄로 돌아온다. 그의 일본 유학생활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 시기에 동향지 『하남』[18]에 발표한 문장과 그가 두 번째 도쿄에서의 생활에서 만난 명망가 장타이옌의 관계는 루쉰의 초기 사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이국 땅 도쿄에서 장태이옌이란 존재를 각인하기 시작한다. 장타이옌은 국학의 대가이자 불교의 유식론에도 뛰어난 조예를 발휘한 학자이며, 자 서구사상과 정치체제에 깊은 식견을 지닌 인물로 '종족혁명론'을 부르짖은 혁명가이다. 그가 『소보(蘇報)』 사건[19]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옥 후 1906년 일본으로 건너 온 그는 당시 유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혁명 활동에 벌인다. 그의 반만 광복을 기치로 내건 선명한 혁명의지가 이들을 혈기를 들끓게 했다. 그는 이어 『민보(民報)』를 창간하며 혁명 활동의 기간지로 삼고 혁명 강습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루쉰 또한 같은 저쟝 출신의 선배로 자신처럼 전통문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박식한 장타이옌의 열정과 실천적 행위는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 있던 청년 루쉰에게는 묘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보』를 열심히 구독하고 신문을 철해 둘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두 사람은 1908년 사승관계를 맺게 된다. 그에게서 루쉰과 저우쭤런 형제는 『설문해자단주(說文解字段注)』와 『이아소의(爾雅義疏)』 등 문자학과 중국 고전 강의를 들었다.

『하남』에 발표한 이 당시 루쉰의 문장은 전부 문언체로 되어있다. 그리고 비교적 유려하면

---

17) 聖人不死, 大盜不止, 『莊子·胠篋』, 『哀塵』譯者附記 『魯迅全集』

18) 『河南』은 1907년 12월 도쿄에서 창간되어 1908년 12월 주일공사의 제지로 정간을 당하기까지 9기가 발간되었다. 河南 출신의 劉積學(28세)이 주편을 맡았고, 張鍾端이 사장을 맡고, 劉青霞가 출자를 하였다. 카이펑(開封)의 大河書社가 판매를 맡아 매 기 판매량이 만권에 달했다는 설도 있으나 그 절반 정도로 쳐도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고자들은 魯迅(27세), 周作人(23세), 蘇曼殊(24세), 張鍾端(28세), 許壽裳(25세), 陶成章(30세), 陳伯昂(28세) 등 출신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19) 『소보(蘇報)』 사건은 1903년 이 신문에 장타이옌이 쩌우롱(鄒容)의 『혁명군(革命軍)』의 서언을 실은 것이 빌미가 되어 장타이옌은 3년간 감옥에 갇혔고, 쩌우롱은 2년을 선고 받고 도중에 감옥에서 죽었다. 이 사건은 중국 혁명운동의 노선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서도 고아한 기풍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문장은 전고는 물론 기이한 글자를 동원하거나 고투의 스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스스로도 "괴이한 자구를 짓고 옛 글자를 쓰기를 좋아하고"[20]하였으며 '난해하기 짝이 없는 고문 문체의 모방에서부터 자체(字體)의 성질의 모방까지'[21] 정도였다. 루쉰 또한 전적으로 『민보』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루쉰이 해석에 어려울 가져다 줄 만큼 함축이고 전아한 전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렵기로 소문난 장타이옌의 문체의 따라한 것은 어쩌면 천박하거나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의 추세를 편승하는 곡학아세의 경멸하는 이들 두 사람의 문사의 전통을 존중하는 자존심에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 유학시기 스승 장타이옌의 영향은 자못 크다 하겠다.[22] 루쉰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실로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예운동으로 전향한 그가 벌이는 외로운 사투는 스승 장타이옌의 활달한 실천 또한 참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2) 문학(文學)을 통한 근대의 모색

이시기의 문장은 대부분 1907년에 12월 창간한 종합 잡지 성격의 『하남』에 대부분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루쉰의 글은 편폭이 긴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절강조』 시기의 글에 비하여 문예와 철학에 관련된 글이 많은 편이다.[23]

『하남』에 발표된 글은 다소 모순된 내용과 논리적 상관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지만, 『절강조』에 비하면 훨씬 루쉰의 기본적 입장과 취지가 명백해 보인다. 장편의 학술적 문장은 비록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논리적 전개를 구성할만한 방대한 학습이 축척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그는 일본으로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최근의 과학과 문학의 이론까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잡지에 실린 글에는 그가 본격적인 문학을 통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족과 동포에 대한 계몽과 각성의 의지가 결연하다.

> "나는 곧 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깨달았다. 무릇 어리석고 나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하더라도 단지 의미도 없는 구경거리나 관객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병으로 죽는 자가 얼마가 되 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당면과제는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일고, 정신을 개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는 그때에 문학과 예술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문예운동을 제창한 것이다."[24]

---

20) 「墳」 題記. 『루쉰전집』 제1권, p.27.
21)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루쉰과 소세키 동양적 근대의 창출』, 소명출판, 2000. p.42. (다카다 쥰高田淳의 『張士釗·章炳麟·루쉰』에서 재인용)
22) 「關於太炎先生二三事」 루쉰은 이 글에서 "선생의 업적은 혁명사적에 남아 있으며 실제로 학술사적에 비하여 더 높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23) 「人之歷史」(1907.12 제1기), 「摩羅詩力說」(1908.2-3 제2-3기) 「科學史教編」(1908.6 제5기), 「裴彖飛詩論」(1908.8 제7기), 「文化偏至論」(1908.8 제7기), 「破惡聲論」(미완)(1908.12 제8기)가 실려 있다.
24) 『魯迅全集』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417.

이 시기 그가 도쿄로 돌아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문예 전문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의 동생 저우쭤런도 함께 도쿄로 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루쉰의 문예 운동을 지원하며 학문적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신생(新生)』[25]을 잡지 이름으로 정하고 발간작업에 돌입하였으나 끝내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만다. 이렇듯 그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했던 작업은 처음부터 실패라는 참담한 좌절을 겪게 되었다. 아마 이때를 즈음하여 그의 인간과 사회현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그의 의식을 통해『신생』의 불발로 낙담을 경험한 이후에도 더 이상 학교의 진입을 모색하지 않고 그는 독자적으로 문예운동을 의연히 실천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생 저우쭤런과 공동 번역한 단편소설집『역외소설집(域外小說集)』[26]1 · 2의 출간은 이를 증명해 준다. 이 번역집에는 유명 작가와 작품 보다는 제3국의 작가와 작품이 많이 차지한다.[27] 이런 성향은 그가 추구하는 문예운동의 중요한 노선이 되었다. 루쉰은 저작 활동에 있어 번역에 많은 공을 들였고 그의 저작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 시기 어렴풋하나마 루쉰의 세계관도 서서히 정립되고 있다. 당시 일본에 유입된 신진사상까지 섭력하는 그 자신의 관점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사유의 추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기 그의 대표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명제가 '입인(立人)'이다.

먼저 그가 제시하는 '입인'의 인간 중심적 철학의 해석을 살펴보자.

>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강과 각축을 벌이려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사람이 선 다음에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사람을 세우려면 반드시 개성을 존중하고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과거에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반신불수였고, 지금은 왕래를 통해 전해진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으니, 이 두 가지 질병이 교대로 뽐내면서 중국의 침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아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니 더 지속할 수가 없구나![28]

우리는 위에서 볼 수 있듯 루쉰이 제시한 '입인'이 추상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자각과 각성의 지표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입인'을 암흑과 복종의 현실 속에 갇힌 민족과 국민을 일깨우는 '인간해방'[29]을 구체적 입론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하남』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의 긴 편폭의 글들을 볼 수 있다. 그의 과학적 지식의 천착과 이를 토대로 한 계몽의식을 강조한 글이란 점에서 그의 논리적 사유가 한층 구체

---

25) 1907년 루쉰이 도쿄로 돌아 와 '오사(伍舍)'에 기거하며 문예잡지『신생』발간 작업을 준비하였다. 본격적 문학동인지를 만들 구상으로 잡지 제목, 표지, 삽화 및 집필진까지 구성하였으나 발간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26) 1909년 2월 제1권을 인쇄하고. 6월에 제2권을 인쇄하여 도쿄와 상하이에서 출간하였다. 러시아의 체홉, 안드레예프, 가르신, 폴란드의 시엔키에비치, 핀란드의 아호,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 보스니아의 무라드비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도쿄에서 1, 2권이 20권 판매되었고, 상하이에서도 대략 20권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의 독립운동에 참가한 민족시인 페퇴피(Sándor Petöfi)의 시론「裴彖飛詩論」(1908.8 제7기)을『하남』에 발표하기도 한다.

28)『루쉰전집』, 앞의 책, p.102.

29)『절망에 반항하라』, 앞의 책, p.71.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역사(人之歷史)」에서 그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헤켈(E. Haeckel)의 종족발생학을 소개하는데, 과학사적 인간 발전의 역사를 기술하면서도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민족의 연원과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읽어 낼 수 있다. 진화론을 발판으로 한 그의 명쾌한 논리적 설명이 단순한 과학적 지식에 묶이지 않고 사유를 외연으로 끌어간다.

그리고 「과학사교편(科學史教編)」을 통해서는 그가 서구 학문의 접근을 통해 얻은 한층 견고해진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를 철학과 문예 등 문화적인 측면과 연계 자신의 관점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문명론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말단은 비록 일시적으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기초가 견실하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 버리니 처음부터 능력을 비축해야 오래가는 법이다. 다만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회가 편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의 과학 실증주의와 전통적인 중용론이 접목한 이 시기 그의 사고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 『하남』 시기의 저술에는 그의 사상적 경향을 대변하는 사상가나 문학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여기에 언급된 인물에 대해 비록 얼마나 그들의 사상적 철학 원리를 체득했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일정한 그의 사상적 경향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 루쉰은 의심할 것도 없이 슈티르너의 개인적 무정부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는 「문화편지론」에서 슈티르너·니체·키르케고르 등을 '사상계의 신인'이며 '투쟁에 뛰어난 선각자'들이라고 열렬하게 찬양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독일인 슈티르너는 먼저 극단적 개인주의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는 진리의 진보는 모두 자기 자신의 발아래 있다고 주장하였다.[30]

그는 19세기 중후반 유럽 사상계를 뒤흔든 철학가들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데 위의 인물들 밖에도 관심을 가진 사상가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주관주의적 관점을 가진 비이성주의 철학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31]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비록 후일의 일이긴 하지만 1925년 5월 31일 루쉰은 쉬광핑(許廣平)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사상은 "휴머니즘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서로 증감하며 기복을 이룬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생각과 입장이 일시적으로 형성되거나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 유학시기 청년 루쉰이 인상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슈티르너의 사상은 루쉰에게 미친 영향 역시 적지 않으리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서 논외로 하지만 그에 의해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보아도 일본 유학시기 루쉰의 사상적 경향을 추론하는 것은 흥미롭다.

슈티르너로 시작된 '개인주의적 무치주의'의 '유일자', 니체의 '초인', 쇼페하우어의 '천재', 키르케고르의 '단독자', 바이런의 '영웅' 등은 그가 자주 언급한 철학자들이다. 당시 서구의 정신세계를 뒤흔든 철인들이기도 하다.

---

30) 錢理群, 『周作人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0, p.133-135. (『루쉰과 저우쭈어런』, 앞의 책, p.98 재인용)

31) "人道主义和个人的无治主义两种思想的消长起伏" 『魯迅全集』 11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79.

> 지혜로운 사람을 누르고 평범한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대중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바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다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개성의 존중이야말로 마땅히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자강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여론을 배척하고 세속에 빠져들지 않는, 용맹스럽고 두려움 없는 사람에게 기대야 할 것이다.[32]

그의 이런 개인주적 경향과 그의 철학적 관점에 논리적으로 모순과 혼란이 존재하지만 그가 문학으로 전향하면서 중국의 '근대'를 위한 고독한 실천의 첫 행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유학시기 서구사상의 수용과 자기 변용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들의 전통적 사유의식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비롯된 서구의 외압과 침탈로 민족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전통의식을 파기하고 외래사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동서 문물의 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유가 자리잡고 있었다. 단적으로 양무운동을 추창한 장지동(張之洞)의 '중체서용(中體西用)' 같은 모토가 그들의 시대적 고민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사정은 젊은 신흥 지식인 예외일 수는 없었다. 아편전쟁 이후 외국 유학이나 서구 문물을 경험한 옌푸, 후스(胡適), 량치차오, 장타이옌, 류스페이(劉師培) 등은 후일 '국수(國粹)'적 경향을 보였고, 사회개혁을 선도한『신청년』잡지에 동참한 루쉰, 저우쭤런, 류반농(劉半農), 첸쉬안퉁(錢玄同) 등은 전통문화와 고전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선진 문물과 학문의 직접적인 세례를 받은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낡은 사유와 문화적 유산을 버리고 외래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외래의 사상이나 문화를 자국의 전통적 사유구조와 의식의 틀에 대비하여 해석하고 수용하였고, 이런 점은 초기 루쉰에게서도 발견된다. 일본 유학시기에 루쉰이 유학생 잡지에 기고한 글들은 복합적이고 폭넓은 사상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그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논리적 모순과 혼란은 그의 사상적 동요와 혼란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동양의 '정체(停滯)'를 타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독자적인 근대를 창출하고자 한 필사의 노력"[33]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1) 슈티르너의 '유일자(唯一者)'와 루쉰의 '이 자아(此我)' [34]

32)「文化偏至論」, 앞의 책, p.95.
33)『루쉰과 소세키 동양적 근대의 창출』, 앞의 책, p.41.
34) 惟有**此我**, 本属自由 ; 既本有矣, 而更外求也, 是曰矛盾.「文化偏至論」

조국의 암울한 상황을 뒤로 하고 서양문물을 앞서 수용한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른 루쉰에게 “도쿄는 이렇다 할 건 없었다.”[35] 그의 이런 소회는 어쩌면 자신의 사상적 혼돈과 방황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자국 유학생들의 변발을 희화화하며 자신의 변발을 과감하게 잘라버린 것 역시 자신의 구원을 향한 격렬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었다.

루쉰은 그의 학문적 취향과 왕성한 학구열을 감안하면 일본 유학 과정에서 숱한 사상가와 문학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상적인 측면에서 초기 루쉰을 규명하는 중요한 가늠자인 슈티르너의 사상적 수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슈티르너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은 루쉰의 사상의 전반을 설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슈티르너는 헤겔 사후 청년 헤겔파 운동의 핵심인물이었다.[36]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사회적 압력과 강제를 거부하며 개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진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아나키즘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여 사상적 운동의 산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대개 아나키즘은 바쿠닌, 크로포트킨, 말라테스타가 주축이 되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으로 분류하는데 후자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주요한 인물이 바로 슈티르너이다. 특히 슈티르너는 에고이즘을 강조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추구하였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사회적 아나키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전자가 최소국가론의 틀 내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 경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적-친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데 비해서, 후자는 사유재산과 시장 지배를 거부하며 평등이 보장되는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부정주의와 반자본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37]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슈티르너는 일체의 윤리적 덕목과 가치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이해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에고이스트적 개인주의를 내세우며 1845년 발간한『유일자와 그의 소유』란 책에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무이다(Ich hab’ Mein Sach’ auf Nichts gestellt)”[38]란 선언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슈티르너에 대한 루쉰의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슈티르너에 대한 그의 소개는 일종의 자기 선언에 견줄 만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독일인 슈티르너가 가장 먼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내걸고 세상에 나타났다. 그는 진정한 진보는 자기 발아래 있다고 했다. 인간은 자기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관념적인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자기 개성이야 말로 조물주이다. 오직 이 자기(我)만이 본래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자유는 본래 자기에게 있는 것이므로 다른 데서 구한다면 이는 모순이다. 자유는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힘은 바로 개인에게 있고, 또한 그것은 개인 소유물이면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만일 외부의 힘이 가해진다면 그것이 군주에서 나왔든 또는 대중에서 나왔든 관계없이 다 전제(專制)이다. 국가가 나에게 국민의 의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전제(專制)이다. 대중의 의지가 법률로 표현되면 나는 그 속박을 받아들이는데, 비록 나의

35) “东京也无非是这样.”「藤野先生」,『朝花夕拾』,『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36) 김은석,『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4, p.96.
37) 김성국,『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이학사, 2015, p.132.
38)『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앞의 책, p.97.

노예라고 하더라도 나또한 마찬가지로 노예일 뿐이다. 법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의무를 폐지하면 법률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 의미인 즉, 한 개인의 사상과 행동은 반드시 자기를 중추로 삼고 자기를 궁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자아 개성을 확립하여 절대적인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9]

무엇보다 자의식이 강한 루쉰으로서는 슈티르너의 개체성을 강조하는 그의 이론이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 루쉰은 많은 서구의 이론을 접하면서도 당시의 시류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도쿄에서 당시 중국 정치운동의 거두이자 핵심 인물인 장타이옌과의 긴밀한 사승관계에서도 그는 정치적 결사를 맺지 않았다. 오히려 루쉰은 당시에 발표한 글 곳곳에서 개성을 유행처럼 부르짖으며 지식인들이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는 풍토를 개탄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유일자'로 대변되는 개인적 능력과 개인적 실천을 강조하는 슈티르너의 주장은 루쉰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자 출로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슈티르너의 에고이즘은 아나키즘의 실천적 운동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토피아적인 철학 이론에 가까워 슈티르너의 자유정신은 순수한 의미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루쉰은 슈티르너의 사상을 번역하면서 '차아'란 단어로 고독한 속성의 개체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였다. 루쉰에게 있어서 개인과 개성의 문제는 자기 실존의 영역에서 깊은 고민의 대상이었다. 그는 '차아'란 단어를 통해서 '이것'라는 객관적인 대상과 '자기'라는 주체를 병렬하며 그것들의 상관관계에 주의하고 있다.[40] 이는 자기를 객관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개체의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동양적 사유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슈티르너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무"란 개념은 동양의 사유 속에서는 쉽게 불교의 '좌탈입망(坐脫入忘)'이나 중국 노장사상의 '무위(無爲)'를 통한 개인과 세계의 대립 없는 '물화(物化)'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진 시기 현학을 추구한 문사들의 의식과 실천적 행위는 특히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후일의 많은 지식인들의 표본이 되었다. 루쉰 또한 완적(阮籍), 혜강(嵇康) 등 당시의 학자들과 위진 시기의 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루쉰은 아나키즘이라는 국제적 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맥락에서 슈티르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 아나키즘의 선구자인 류스페이와 그의 부인 허전(許震)은 도쿄에서 장타이옌과 쑤만수와 기거하며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하였고,[41] 앞서 언급한 장타이옌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루쉰이 일본 유학 시기에 아나키즘에 대한 정보와 어느 정도의 이론적 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루쉰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논리를 체화하는 방식에서 슈티르너를 택하였고, 슈티르너의 순수한 이론이 중국의 국민성을 일깨우는 촉매작용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초기의 그의 계몽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의 나라(人國)'라는

---

39) 「文化偏至論」, 앞의 책, pp.91-92.
40) "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 『齊物論』
41) 사가 다카시 저, 이원석 역, 『중국의 근대 혁명과 전통 사상 사이에서 — 유사배평전』, 景仁文化史, 2012, p.67.

명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쉰은 '사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먼저 개체의 자기 각성과 울림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정체(己)를 갖게 되며,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각성을 가지게 되면 사회의 큰 각성은 조만간 달성될 것"[42]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세우는" 가장 좋은 길[43]이라며 이상적인 국가론을 펼치고 있다.

> 밖으로는 세계 사조에 처지지 않고, 안으로는 고유한 혈맥을 잃지 않고, 오늘날 것을 취해 옛것을 부활시키고, 달리 새로운 유파를 확립하여 인생의 의미를 심원하게 한다면, 나라 사람들은 자각하게 되고 개성이 확장되어 모래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로 인해 사람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면 비로소 전에 없이 웅대해져 세계에서 홀로 우뚝 서게 되고, 더욱이 천박하고 평범한 사물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44]

이처럼 슈티르너에 대한 루쉰의 공감은 철학적 방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슈티르너의 순수하고 이상적 주장은 루쉰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니체의 '초인(超人)'과 루쉰의 '일이사(一二士)'[45]

20세기를 전후로 니체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철학가는 드물 것이다. 동아시아의 근대적 개념을 소환하고 정리하는데 있어 니체의 영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본 유학시절 젊은 전사의 투지를 불태웠을 청년 루쉰이 니체를 통한 모종의 세례 또한 적지 않았다. 그가 유학한 일본의 학술계는 니체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46] 루쉰은 니체의 사상에서 특히 '초인', '천재'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 니체 같은 사람은 개인주의의 최고 영웅이었다. 그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은 오로지 영웅과 천재였으며, 우민을 본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뱀이나 전갈을 보듯 증오하였다. 그 의미인즉, 다수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면 사회의 원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며, 그보다는 평범한 대중을 희생하여 한두 명의 천재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나으며 차츰 천재가 출현하게 되면 사회활동 역시 싹이 튼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인설인데 일찍이 유럽의 사상계를 뒤흔들었던 것이다.[47]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사회는 이미 타락하여 "확고한 신앙도 없고", "지식을 만들어 낼 창조적 기질도 없으므로", "잠시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손 뿐"[48]이라고

---

42) 홍석표 옮김, 『무덤』, 선학사, 2001, 「破惡聲論」, p.434.
43) 『절망에 반항하라』, 앞의 책, p.72.
44) 「文化偏至論」, 앞의 책, p.100.
45) 惟此亦不大衆之祈, 而屬望止一二士, 立之爲極, 俾衆瞻觀, 則人亦庶乎免淪沒.. 「破惡聲論」
46) 『절망에 반항하라』, 앞의 책, p.76.
47) 「文化偏至論」, 앞의 책, p.93.
48) 「文化偏至論」"聊可望者, 独苗裔耳."

탄식하며 기존의 문명을 거부하고 회의하였다. 그리고 루쉰은 이러한 니체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루쉰 또한 그가 마주한 조국의 현실이 그렇거니와 이를 타파하기 위한 인사들의 이기적 모습과 행동 양태에 적이 비관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접한 니체의 '초인' 철학은 실력 있는 명망가에 의해 세상의 악폐를 일소할 수 있다는 희망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미래의 세대를 희망으로 그린 논조는 마치 『광인일기(狂人日記)』의 마지막 메시지 "아이를 구하자"라는 절규를 연상케 한다.

루쉰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형상을 훌륭한 선비의 표본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두 사람의 뛰어난 선지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전형적인 전통적 엘리트 사회의 성현이나 성인으로 비유되는 성인정치를 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두 명의 선비一二士'가 의미하는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완전한 인격체가 세상을 이끄는 이상주의에 가깝다.

> "이는 반드시 대중에게서 기대할 바는 아니며, 선비 한 두 사람에게 위촉하여 그들이 앞장서고 대중을 따르게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염원이 비록 작으나마 그것은 거문고에 현 하나를 남겨두는 것 마냥 가을 하늘에 홀로 떠 있는 별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49]

이는 당시 그의 문사의식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그는 중국 전통 선비의 궁극적 지향점과 오늘의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일이사(一二士)'는 중국 전통사회에서 이상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선비(士')[50]나 '성인(聖人)'[51]의 형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루쉰은 중국에서 천재를 무시하는 풍토를 개탄한다. 오히려 세상을 구할 인재를 죽이는 관행으로 인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적막감에 쌓인 고국(古國)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제왕들이 자리를 보전하는데 급급하여 세상의 혼란을 싫어하고 통치를 대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천재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죽인다"는 표현으로 능력과 실력을 배격하는 중국의 현실을 우려하였다.

이는 루쉰이 '초인'설을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론에 의한 대중정치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인격과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은 아첨을 일삼는 무리와 주의를 내세우며 대중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태에 대한 냉엄한 자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루쉰 본래의 편집적 성격에 따른 것이 되었든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의 현실적 처세를 비꼬아 표현한 것이 되었든 역으로 루쉰이 당시의 동료 유학생을 향해 혹독한 자기 수양과 훈련을 강조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실제로 루쉰은 당시 민족적 내지 국가적 변화를 꾀하는 요란한 목소리를 두고 무엇보다 개인의 실력과 인격의 성찰 등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사상가나 사조를 맹신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해와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좌시 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격의(格義)적인 관점에

---

49) 『무덤』, 앞의 책, p.432.
50) 周有八士: 伯達·伯适·仲突·仲忽·叔夜·叔夏·季隨·季騧. 『論語·微子』
51)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老子』 第3章.

서도 그러하거니와 자신들에게 이미 익숙한 중국 사유의 대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자칭 문명인이라는 인물들이 정돈되지 않은 자기주장을 함부로 떠벌리고 대중에 영합하는 처세를 비난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인격적 수양이 동반되어야 함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난무하는 외국의 유행 사상을 어설프게 수용하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민족의 학문을 성실히 체화하고 대중에 끌려가지 않는 선지자로서의 지식인의 규범을 요구하였다.

> "그런데 오늘날 불현듯 변혁을 생각한 지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청년들이 사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가 옛날의 문물에게 죄악을 덮어씌우고 심지어는 중국의 말과 글이 야만스럽다고 배척하거나 중국의 사상이 조잡하다고 경멸한다. 이러한 풍조가 왕성하게 일어나 청년들은 허둥대며 서구의 문물을 들여와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19세기 말의 사조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물질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실상을 따져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물질이란 완전히 허위에 차있고 편향되어 있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장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위기를 구제하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발상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하물며 날조하여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몰래 사욕을 채우고 있음에랴. 이제 지사라는 자들에게 감히 묻겠다. 부유함을 문명이라 여기는가?[52]

위의 글을 통해서 당시 루쉰이 지녔던 지식인의 본분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세계를 정신적 피폐가 낳은 물질숭상으로 인한 속류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물질적 문명에 쉬이 세뇌되고 변질되는 당시 지식인들의 풍조에 대한 한탄하였다. 루쉰은 당시 지식인이 보여주는 행동의 괴리와 부박한 지식을 경고하며 내면의 허위와 욕망을 걸러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내요(內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양심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 이 때문에 이들의 사고나 행동은 모두 바깥 사물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신의 마음 속 세계에서 움직이며, 확신도 거기에 달려 있고 만족도 역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면적인 빛'을 점차 스스로 깨달은 결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53]
>
> 국민들의 '내면적인 빛'을 발양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정체를 가지게 되어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마침내 바로 세워질 것이다.[54]

이로 볼 때 루쉰에게 있어서 '내요'는 바로 인간 주체의 개성이자 실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개체의 인격이 도덕과 수양을 함양하고 지식을 쌓는 삶의 일체가 되어 자연스럽게 지식인의 '사회적 양심'[55]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이다.

---

52) 「文化偏至論」, 앞의 책, p.101.
53) 「文化偏至論」, 앞의 책, p.96.
54) 「破惡聲論」, 앞의 책, p.438.
55)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6, p.9.

3) 바이런의 '영웅(英雄)'[56]과 '마라(摩羅)'

일본 유학시기 루쉰의 문예관을 대표하는 글이 「마라시력설(摩羅詩力說)」이다. 스스로 억지로 긁어모았다는 표현을 쓴 장편의 이 글은 그의 독특한 지평과 사유의식을 바탕으로 루쉰의 문학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 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영국 낭만주의 시가를 대표하는 작가 바이런에 대한 소개이다. 그만큼 바이런의 문학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루쉰은 특별하게 다르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이런은 그의 시작 활동이나 기이한 행각을 통해 근대 시인의 또 다른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루쉰은 이런 바이런을 근대적 시인의 표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바이런의 행위와 사상에 근거하여 시인의 일생의 비밀을 탐구해 보자. 그는 부딪히는 것마다 늘 저항했고 의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했다. 힘을 귀중하게 여기고 강자를 숭상했으며 자기를 존중하고 전쟁을 좋아했다. 그가 좋아한 전쟁은 야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 그는 평생 동안 미친 파도처럼, 맹렬한 바람처럼 일체의 허식과 저속한 습속을 쓸어버리려고 했다. 앞뒤를 살피며 조심하는 것은 그에게 아예 모르는 일이었다. 정신은 왕성하고 활기차 억제할 수 없었고, 힘껏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신만은 반드시 스스로 지키려 했다. 적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성실하여 조금도 거짓되거나 꾸미는 일이 없었다. 세상의 명예와 불명예, 포폄, 시비, 선악은 모두 습속에서 연유하므로 진실하지 않다고 여겼으니, 이 때문에 이들을 모두 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았다.[57]

그는 바이런의 상무적이며 열정적이고 진솔한 면을 극력 칭찬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를 작가의 표상으로 삼아 좇았다고 하여도 수긍할 정도이다. 이른바 '바이런적 영웅(Byronic Hero)'이라 불리는 개성적인 작중인물들은 그가 문학과 현실 속에서 구체적 창작의 동인이 될 만치 그는 바이런의 작품 하나하나를 꿰뚫고 있다. 「마라시력설」에서는 이런 해럴드, 콘래드, 맨프레드 등을 이런 인물의 용기와 모험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실상 이 인물들은 시적으로는 영웅적으로 묘사되지만, 일반적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인물의 내면에 둥지를 튼 악마적 본성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불운을 안겨 주는 숙명적인 인간"이지만, "초인적인 자부심과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는 야릇한 환희를 맛보며 비극적 황홀감에 깊이 젖어들기도 하는"[58] 소위 문학에서의 정면의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인물을 '사탄(Satan)'이나 '악마(惡魔)'란 명칭을 붙여 사탄학파나 악마주의라는 불온한 문학적 취향으로 폄하받기도 한다.

---

56) 厥初二章, 尚受裴倫之感化, 則其英雄阿內庚爲性, 力抗社會, 斷望人間, 有**裴倫式英雄**之概, 特已不憑神思, 漸近真然, 與爾時其國青年之性質肖矣. 「摩羅詩力說」

57) 「摩羅詩力說」, 앞의 책, p.139.

58) 김철수, 『영국낭만시 연구』, 경북대출판부, 2005. pp.112-113.

중국에 서구문학이 소개되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영향력을 미친 작가가 바이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가 시작되자 바이런에 대한 열풍이 중국의 젊은 청년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1903년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예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양계초가 1903년 『신중국미래기(新中國未來記)』에 바이런의 시 『돈 주안』의 일부를 번역해 실은 것을 필두로 일본 유학 중이던 마쥔우(馬君武)가 1905년 일본에서 『애희랍哀希腊』이란 제목으로 시를 전역하였고, 1906년에는 역시 일본 유학에 나섰던 승려 쑤만수가 5언 고체의 시풍으로 역시 『애희랍』을 번역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후스 또한 바이런 시를 번역하였다.[59] 그리고 왕궈웨이 또한 『영국대시인바이런소전(英国大詩人白衣龍小傳)』(1907)을 발표해 바이런의 일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루쉰은 나아가 「마라시력설」을 통해 바이런시가 지니는 의의를 자신의 입장에서 독창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바이런의 시와 그의 생애가 중국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을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다. 바이런의 문학은 서구문학의 수용 단계를 넘어 중국 신문학 탄생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먼저 바이런의 시를 통해 문학이 기존 세계의 질서에 저항하고 낡은 문학의 체질을 전복하는 상징적인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을 루쉰은 '직서(直抒)'라고 불렀다.

> "바이런에 이르러 옛 규범에 벗어나 믿는 바를 **직서**했고 그 문장은 강건, 저항, 파괴, 도전의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평화로운 사람은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60]

바이런의 기본적 서사가 '솔직하고 진솔함 담아내는'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신문학의 기본적 방향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그의 사실주의적 문학의 실천 역시 바이런의 창작과 실천이 결부된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루쉰은 바이런의 시적 진실과 더불어 역사적 정의를 위한 시인의 행동에 크게 감복하고 이를 추켜세운다. 알다시피 조국 영국에서 추방되다시피 한 바이런은 이탈리아에서 문학 활동과 함께 비밀결사를 맺어 활동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그리스로 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서양문명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정신과 문화가 탄생한 그곳이 현실적으로 식민지로 전락한 것에 한없는 안타까움을 표하다가 결국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헌신하다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한다.

루쉰은 바이런의 자유를 향한 열렬한 투쟁정신과 그 실천을 그의 창작과 함께 기렸다. 그는 바이런의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유를 향한 투쟁을 작가가 갖추어야 할 작가정신의 지표로 삼았다. 과거의 전통과 영광을 뒤로 하고 '세습적인 노예(世襲之奴)', '자유의 후예 노예(自由苗裔之奴)'로 전락한 그리스와 비슷한 현재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 바이런의 문학과 생애는 더욱 비감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바이런으로 출발한 악마파의 시는 바이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신의 계보를 형성한다. 루쉰은 영국의 셸리를 거쳐 이방의 러시아 푸시킨, 레르몬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덴마크 브란데스, 폴란드 미츠키에비치를 거쳐 헝가리 페퇴피까지 그는 중심과 변방

---

59) 張娟平, 「拜倫的形象 : 從歐洲到中國--以1900－1917年間拜倫在中國的譯介爲重點來考察」, 首都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5.

60) 「摩羅詩力說」, 앞의 책, p.123.

을 아우르는 문학적 식견과 시야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페퇴피에 대해선 따로 『하남』에 그에 대한 글을 번역하여 기고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루쉰은 바이런적 낭만주의를 중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그는 바이런과 같은 악마파시를 중국어로 '마라(摩羅)'라는 용어로 번역하며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교의 마왕 파순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중국에서는 단순히 악의 화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루쉰은 이 용어로 중국의 문화 속에서 창조된 상상의 세계 속 숱한 인물인 '신마(神魔)'의 형상을 통괄하여 의미화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루쉰은 종교적이고 예술적이며 민간 주술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그 속에서 문학적으로 새로운 서사의 방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소리를 통해서 "웅대한 목소리를 내어" 루쉰 자신이 문학으로 전향해 세상의 각성의 위한 첫 작업으로 추진했던 잡지 이름과 같은 '신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저 목소리만 높여 '악의 소리(惡聲)'를 부수고 깨뜨리는 단호한 쟁론의 문학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루쉰은 이 소리를 '적막을 깨치는', '거짓과 거리가 먼' 즉 '심성(心聲)'이 발산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이런의 영웅적 인물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 아우구스티누스, 톨스토이, 루소의 참회록은 위대하나니, 거기에는 마음의 소리가 넘쳐흐르고 있다. 만일 뿌리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을 추수하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만만하게 나라와 천하를 구하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먼저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 보고 싶다.[61]

또 하나는 '신사(神思)'라는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영각(靈覺)과 묘의(妙義)' 담아내는 시가와 예술을 중국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학의 민족성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새로운 문학의 창조적 작업을 의미한다. 루쉰은 일찍이 신화와 전설, 민간의 문예적 요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가 가졌던 이러한 관심과 지식은 후일 문학 창작의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 사오싱은 독서 전통이 유구한 고장이어서, 잡기나 야사류의 책을 구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루쉰은 그때 아주 부지런히 책을 읽으면서도 점점 그림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잡다한 독서를 통해 루쉰은 전통문화 이외의 민간적인 정취나 인간적인 정이 담긴 문화정신을 점차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책을 베끼거나 소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저우쩌우런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었다. 책을 베끼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소년 시기의 심성 함양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62]

이처럼 그는 보통의 전통 학문을 입문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경학과 소학 등 정규적인 학습에만 매진하지 않고 민간에 유통되는 다양한 서적과 민간 연희 및 민화 등에도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경서에만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분야에 걸친 관심과 소양이 그의 글쓰기의 진부하지 않고 참신함 매력을 발산하는 기틀이 되었다.

---

61) 「破惡聲論」, 앞의 책, p.441.
62) 『루쉰과 저우쭈어런』, 앞의 책, p.37.

이런 그의 서사정신에는 루쉰이 위진남북조의 문사들의 필법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는 특히 위진남북조시기의 사대부들의 철학과 실천적 행동양식에 많은 연구를 하였고 자연 그들의 필법에 본받고 있다. 이들의 필법이 보여주는 개성적인 표현과 철학적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매개로 한 표현 양식이 루쉰의 글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는 중국의 전통 사상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학술적인 조예를 갖추고 있었다.

이런 그의 생각은 그 자신의 글쓰기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남을 추종하기 싫어하고 독자적인 정신으로 그의 문학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것의 방법론은 '직서'이며, 시인 바이런의 자유로움과 거침없고 성실한 문학적 기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담아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의 글이 투창[63]과 비수처럼 와 닿은 것은 바이런의 필법이 루쉰에게서 살아 숨쉬기 때문인지 모른다.

4. 나오며

'서양의 물결(西潮)'이 몰아친 동아시아의 문명의 대격변기에 새로운 학문의 수용과 시대적 담론에 앞장선 이들은 밖에서 직접적으로 그 충격을 경험한 유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충격과 고뇌와 격정, 미래를 위한 생각은 그들이 펴낸 유학생 잡지 속에 잘 녹아 있다. 우리는 이 잡지들을 통해 그들이 그려내고자 했던 중국 근대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 유학시기 루쉰이 동향지 『절강조』와 『하남』에 발표한 글들은 루쉰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글들에서 루쉰은 서구에 대한 맹목적 경도나 수용이 아닌 전통의 계승과 서구와의 조화의 방식으로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루쉰은 어려서부터 중국 문사들의 전통방식으로 오랜 훈련을 받으며 성장기를 보냈고 이후 서양식 학교에 진학하여 과학과 철학을 학습했다. 이렇듯 중국 전통학문과 신흥 서구학문에 두루 통달한 그의 학문적 자질과 정신적 고양은 『절강조』와 『하남』의 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루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중국 근대의 선각자 옌푸와 장타이옌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들의 자산을 흡수하고 나아가 서구세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대표적 철학가와 문학가인 슈티르너, 니체, 바이런의 지성이 공존하는 양태를 보여준다. 일본 유학시기 루쉰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회개조의 이상을 구현하는 관념론자이자 서구의 문예와 철학을 응용하여 중국의 근대적 각성을 추구하려는 실천적 지성으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숱한 '루쉰학'의 연구 성과 속에서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3) 『루쉰전집』 제3권, 앞의 책, pp.88-89. 「이러한 전사」.

슈티르너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으로 루쉰의 아나키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를 아나키스트로 명명하긴 곤란하지만 그의 이런 성향과 그리고 중국에서 아나키스트적 성향의 인물들이 위진 시기 현학과 도학적 기질의 인물들을 추종한 점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루쉰 역시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위진 문학에 대한 글도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중국은 바이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루쉰의 유학시기 글 또한 많은 부분 바이런에 할애하고 있다. 바이런적 낭만주의 문학은 루쉰의 관점에서 보면 생동적이고 인간적인 문학의 외연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려는 그의 탁월한 작가적인 기질을 발견하게 된다. 루쉰 또한 일찍이 민간설화에서 지괴소설 그리고 그림, 연극 등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책을 만들어 내는 안목까지 있었다. 중국 문학에서 바이런적 낭만주의 버금가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 한부(漢賦)의 글자까지 화려한 유미와 지괴, 전기의 의인화된 귀신, 신마무협계열의 환타지 등 중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의의를 탐색하는 작업은 루쉰의 유업이 아닐까?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의 중국유학생 잡지는 중국의 문학, 예술, 정치, 법률 등 근대적 제도의 형성과정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생동적인 자료이다. 근대의 관념 자체가 생경한 무렵에서 시작된 이들 잡지가 보여는 다양한 양태는 근대의 물적 기반으로서 어떻게 제도가 탄생하고 정착하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앞으로 당시 루쉰 뿐 만 아니라 동시기의 근대를 이끈 저명한 문학가들에 대해서도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근대 문학 연구에서 나아가 한층 풍부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그린비, 2010.
홍석표 옮김, 『무덤』, 선학사, 2001.
쑨위 지음, 김영문·이시활 옮김, 『루쉰과 저우쭈어런』, 소명출판, 2005.
왕후이(汪暉) 지음, 송인재 옮김,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중국현대문학학회 저, 『노신의 문학과 사상』, 백산서당, 1996.
전형준 엮음, 『루쉰』, 문학과지성사, 1997.
林賢治 저, 김진공 옮김, 『인간 루쉰』, 사회평론, 2007.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루쉰과 소세키 동양적 근대의 창출』, 소명출판, 2000.
사가 다카시 저, 이원석 역, 『중국의 근대 혁명과 전통 사상 사이에서 — 유사배평전』, 景仁文化史, 2012.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이있는집, 2004.
김성국,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이학사, 2015.
김철수, 『영국낭만시 연구』, 경북대출판부, 2005.
서광덕, 「루쉰, 「과학사교편」」, 『개념과 소통』, vol.8, 2011.
양일모, 「서양을 번역한 엄복의 『천연론』」, 『中國現代文學』, vol.47, 2008.
김영진, 「장타이엔(章太炎)의 종교론과 유식학」, 『종교문화비평』, vol.5, 2004.
신홍철, 「初期 魯迅의 近代的 思想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2.
홍석표, 「魯迅의 初期 文學思想 形成 硏究 : 일본 유학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3.
魯迅, 『魯迅全集』 第一卷, 第七卷, 第八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6.
李澤厚, 『中國近代思想史論』,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8.
李喜所,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 天津:天津教育出版社, 2006.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6.
中井政喜 著, 『魯迅探索』, 東京:汲古書院, 2006,
郭晶, 「魯迅與『浙江潮』」, 遼甯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5.
吉瑞, 「魯迅與『河南』」, 遼甯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5.
Jon Eugene von Kowallis, 劉雲 譯, 「『河南』雜志魯迅早期文言論文的曆史、思想背景以及周氏兄弟心目中文學的使命」, 『現代中文學刊』, 第38期, 2015.5.
汪晖, 「聲之善惡 : 什麽是啓蒙 ? —重讀魯迅的『破惡聲論』」, 『開放時代』, 2010.10.
宋慶寶, 『拜倫在中國』, 北京:中國法政大學出版社, 201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文士, 近代性,『浙江潮』,『河南』, 魯迅, 章太炎, 留學生雜誌
	영문	Literary Men, modernity,『*ZhejiangChao*』,『*Henan*』, Chinese student magazine, Zhang Taiyan, Lu Xun, Literati's consciousness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literati's consciousness
: The Chinese student magazin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Japan
— Focused on Lu Xun's studying in Japan

Park, Lo-Jong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of intellectual discourse in early modern East Asia was often led by elite international students. By 19th century, the traditional intellectual system of China was exhaustive and did not function properly anymore. Opposing to the academics of the past, those who aggressively pursued modernity were those who went to Japan or other Western countries to study abroad and to experience Western civilization. They, as intellectual elites, overturned their concept of traditional East Asia academics and literati and were at the forefront of recreating a new form of academics and '文士' as well as the role of literati.

Although Lu Xun(魯迅)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traditional literati's consciousn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t that time, however, his writings during his study overseas showed a constant pattern of combining and embracing traditional thoughts and modern Western ideas.

Early in his age, Lu Xun not only imitated traditional study methods of Chinese literati, but also developed his own taste and creative attitude toward academics. How he understands and accepts this idea did not change even after he began receiving Western style education. His maiden works written for magazines "Zhejiang Chao(『浙江潮』)" and "Henan(『河南』)" also portray his critical attitude of the harmonization across all ages and countries. It is as if Yan Fu(嚴復) and Zhang Taiyan(章太炎), protagonists from Lu Xun's writing coexist with Stirner, Nietzche, and Byron. With the education from traditional Chinese gentry and his unique personality made him an idealist who practices social reform and a passionate revolutionary practitioner who arbitrarily interprets and tailors Western literature and art.

It is evident that Lu Xun's ideas were not fully developed in his writings during this time but, it is worth peeking through his fundamental ideas amongst his vastly accumulated literature.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박노종 / 朴魯宗 / Park, Lo-Jong		
	소 속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학과		
	Em@il	lujongp@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8월 16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